

조기 교육을 위한 고든(Edwin Gordon)의 음악학습이론

방 금 주

차 례

- | | |
|------------|-----------------|
| I. 서론 | II. 음악소질과 오디에이션 |
| III. 문화화과정 | IV. 모방 |
| V. 동화 | VI. 맺는말 |

I. 들어가는 말

음악교육에 있어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음악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음악교육에 관하여 세부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부모라도 막연하게나마 어린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음악교육자 코다이(Zoltan Kodaly)는 세살부터 일곱 살까지가 음악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보았고 고든(Edwin Gordon)은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나서 세살 까지, 두 번째 중요한 시기는 3살에서 5살로 생애 초기의 5년간 경험된 것은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각 학자들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특정한 연령의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연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시기의 중요성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문화에서 언급하는 음악문화화과정¹⁾(music enculturation)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태고로부터 시작하여 9-10세까지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아이가 접하는 음악적

환경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문화권에서의 형식, 비형식적인 음악경험들이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내재하는 음악적 소질의 계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음악교육자들은 모든 역사의 발전과 진보는 이미 존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음악적 발전과 성숙은 이미 존재했던 것, 선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 취학하여 형식적인 음악수업을 받기 전의 시기, 즉 음악적 소질계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준비도를 형성하는 이 기간에도 각 음악적 발전과정에 따라 적절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음악적 선형들의 규명과 연관된 학습경험들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린이의 음악발달과정에 따른 음악경험들, 음악소질, 음악학습에 있어 장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연관성 있는 계열학습 등에 관하여 상세히 연구한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음악소질과 오디에이션

고든은 음악소질²⁾이란 음악을 배우는 아동의 잠재력으로서 내적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출생시 음악소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없다. 대략 68%는 평균음악소질, 16%는 평균이상, 16%는 평균이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음악소질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음악소질은 태어난 순간 이후부터 그의 음악적 환경이 적절해질 때까지는 계속 감소되어 진다. 주어지는 음악적 환경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아동의 음악소질은 태어난 순간의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아동이 일단 9살 정도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음악적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고든은 먼저 음악소질의 근거로서 오디에이션(audiation)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서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음악을 들을 때 기본적인 요소를 직관적으로 오디에이트하는 정도와 그러한 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가의 정도를 음악소질의 척도로 보고 있다.

오디에이션은 소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울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할 때

- 1) 고든은 이 과정을 준비 오디에이션의 첫번 유형으로서 대략 태어나서 세살 까지 경험되는 음악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 2) 음악소질(Music aptitude)은 음악능력(Musical ability), 음악성(Musicality) 등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고든의 음악소질만이 타고난 때 지닌 본유적인 것으로 본다.
- 3) 이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빙된 자료를 요청한 결과 고든 박사는 신생아, 유아, 3, 4, 5, 6, 7, 8, 9살 연령 그룹의 아동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항목화하여 기록하였고 매년 그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음악소질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3-9살 연령그룹 아동들의 검사결과 유아때의 점수보다 항상 더 낮은 점수로 나왔고 통계학적 상관지수와 검사의 신빙성에 의하여 이러한 이론이 도출되었다고 서신으로 답변하였다.

일어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의 긴 설명을 축약하면 음악적 맥락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코다이나 다른 음악교육방법에서 언급하는 내청(inner hearing)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청은 모방과 거의 동일시되는 것으로 들은 것을 다시 흉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짓고 어디에선 들은 것에 대하여 그 조직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음악적 구문(Syntax)에 대하여 그 조직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 고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으로 5세 가량이 되면 아이는 음악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5세된 어린이는 이미 그가 아는 단어들을 가지고 프레이즈나 문장을 엮어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문장에 대한 의미를 그가 아는 단어들을 합성하여 의미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음악적으로 듣고 표현하는 음악적 단어들을 초기에 개발시켜주면 음악을 들었을 때 그에게 익숙해져서 내재화된 음악적 패턴들을 가지고 그 맥락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근거는 오디에이션인데 인간이 음악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이 일어날 수 있다. 오디에이션은 단계적, 점층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각단계들은 위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몇단계들이 중복되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제시되어진 6단계를 모두 포함한 학습이 효과적인 음악학습이 될 수 있다.

■제1단계

들려진 소리가 보유되어 진다. 이 단계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지각하는 단계.무의식적으로 들은 음악의 소리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단계이다. 학습심리학에서 말하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장기 기억화를 위한 재생 단서가 없으면 단기 기억된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제 2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져 보유된 소리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고 만다.

■제2단계

그 소리를 오디에이트하여 일련의 조성 패턴과 리듬 패턴으로 조직화되어진다. 보유된 소리에 청각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의식적인 과정으로 중요한 음가와 음고들을 중심으로 하여 패턴화 되어지는 과정이다.

■제3단계

음악적 구분을 이루는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성과 박이 오디에이트 되어진다. 조성패턴과 리듬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조직화되어짐에 따라 그 음악의 박자와 조성

4) 일반적인 교육심리학에서 항상 고려되고 있는 학습의 단계별 영역, 공통적인 기본원리는 감각적, 지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는 하위 단계로 시작하여 응용, 적용의 다음 단계를 거쳐 원리의 개념화, 창작, 추상화 과정이 상위 단계로 연결되어 지는 것.

감이 설립되어진다.

■제4단계

듣고 있는 음악에서 이미 조직화되어진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이 오디에이션으로 보유되어진다. 선행단계에서 조직화되어진 패턴들이 저장되어지는 단계.

■제5단계

이전에 들었던 음악에서 오디에이트 되어진 조성패턴과 리듬패턴들 중 현재 들려지고 있는 음악의 패턴들과 뚜렷하게 비슷하거나 상이한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비교되어진다. 듣고 패턴화 되어 보유하여진 패턴들을 기억하여 비교하는 단계이다. 이때 패턴화되어 저장된 것이 많을수록 비교나 분류화가 더욱 용이하다.

■제6단계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도 내재화된 패턴들을 기반으로 오디에이트할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의 진행에 대한 예견 능력이 이루어진다.⁵⁾

고든의 오디에이션의 단계를 보면 음악의 지각과 인지에 관하여 음악심리학에서 밝혀진 음악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들, 즉 조직화기능⁶⁾이라든가 질서도와 기억능력 등과 같은 기본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고 여타의 음악교육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학습의 위계층 이론과도 본질적인 원리는 같다. 코다이 방법론에서는 상세하게 이론화시키지 않았지만 조성과 리듬의 패턴화에 대한 명확성, 이에 따른 위계화 학습과정 등은 오디에이션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코다이에서는 아이가 노래를 자연스럽게 익혀서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의무화 한 후 패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고든은 음악적 구분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패턴의 조직화능력에 대한 경험을 준비 오디에이션의 과정(preducation), 즉 태어나서 5살까지의 기간에 경험되어 자리 잡혀 줌으로써 준비도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이 시기의 학습과정을 구조화시켜 놓은 것이다.

어쨌든 음악에 있어 감각은 선천적인 능력인 반면 지각, 인지는 후천적이고 문화 종속적인 것으로서 지각과 인지의 문제는 후천적인 음악훈련이 어디까지 가능한가하는 교육적 관심사와 연

5) Edwin Gordon(1983), *Learning Sequences in Music* (G.I.A. Publications) p. 22-27.

6) 머셀(J. Mursell)이 음악심리학(The Psychology of Music)에서 설명한 것. 청각으로 감지한 음향을 어떠한 과정을 사용하여 인간이 선율 등과 같은 패턴의 형태로 조직화한 것.

7) Sequence의 일반적 의미는 교육학의 교과과정 구성요소로서 항상 고려되어온 문제이다. Sequence는 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이미 배운 내용을 기초로 더 넓고 깊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James Mursell, Jerome Bruner, Jean Piaget, Robert Gagne 등 대표적인 교육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결되는 것과 같이 오디오에이트 하는 잠재력은 타고 나는 것이지만 오디오에이션을 어떻게 계발시키고 무엇을 오디오에이트 할 수 있는가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으로서 교육적 관심사이다.

고든에 의하면 준비오디오에이션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음악 웅알이 시기인데 언어웅알이 단계를 문화나 인종에 차이없이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처럼 음악웅알이 단계도 어느 누구에나 있다고 본다. 음악웅알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규명된 것은 조성웅알이와 리듬웅알이 단계이다. 조성웅알이 단계에서는 아이는 말하는 어조로 노래하려고 하며 리듬웅알이 단계에서는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몸짓을 만들어 보게 된다. 아이가 하는 이러한 종류의 몸짓이나 웅얼거림은 그 아이가 속한 문화의 음악의 조성이나 박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이 음악웅알이 단계에서 언어웅알이 단계때 부모가 세심하게 단어를 흉내내게 하고 말을 배워주는 것처럼 조성패턴이나 조성패턴을 정확하게 불러주고 이러한 패턴들의 계열학습⁷⁾(sequential learning)을 점차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것이 준비 오디오에이션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의 핵심이 된다.

유형	단 계
■ 문화화(Acculturation) • 탄생에서 2~4살 • 환경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다.	1. 흡수: 주위환경에서 접하는 음악의 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모은다. 2. 임의적 반응: 환경에서 접하는 음악소리에 반응하여 생각 없이 움직이고 웅알이 한다. 3. 의도적 반응: 환경에서 접하는 음악의 소리에 몸짓과 웅알이를 연관시키려고 한다.
■ 모방(Imitation) • 2~4살에서 3~5살 •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식적으로 사고를 한다.	4. 자아중심탈피: 자신이 접하는 음악의 소리와 만들어내는 몸짓과 웅알이가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5. 자신이 접하는 음악의 소리, 특히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모방한다.
■ 동화(Assimilation) • 3~5살에서 4~6살 • 주로 자아에 초점을 맞춘 의식적 사고 관여	6. 노래 부르기과 호흡: 동작과 호흡간에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7. 노래 부르기과 호흡, 동작을 잘 조화시켜 조정한다.

■ 준비오디오에이션 단계에 있는 어린이의 음악적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⁸⁾

8) Edwin Gordon(1990).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 born and Young Children , (GLA. publications), p. 38.

Ⅲ. 문화화과정

아이는 태어난 직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화되어 가기 시작한다. 가정에서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음악소리도 들을 수 있고 부모나 형제들이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어떤 특질의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주는 가가 이 시기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음악문화화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일차적으로 그들 주위에서 경험되어지는 환경의 소리와 자신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구분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소리들을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자신이 소리를 직접 만들어 보며 능동적으로 되어간다. 음악문화화과정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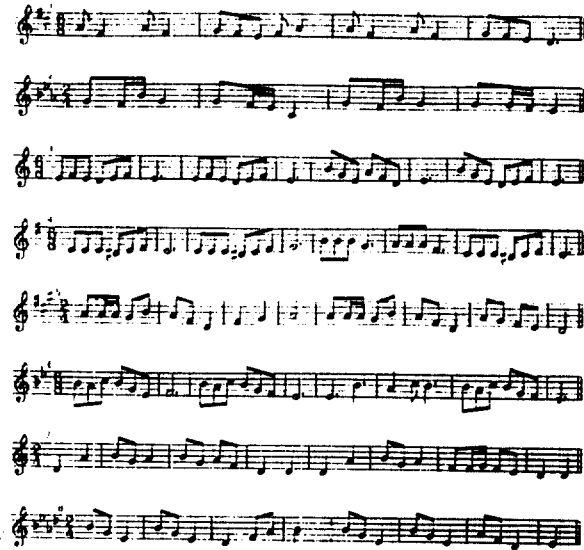
■1단계

아이에게 들려주는 레코드는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나 밴드가 연주하는 기악음악이 추천되고 있다. 어린이용 음악이라고 간주되는 이야기가 삽입된 아동용 레코드 음악이나 성악곡은 음악 소리 자체에 대한 아이의 집중력을 이탈시키는 것으로 추천되지 않고 지나치게 반복이 많은 대중 음악이나 민속음악도 추천되지 않고 있다. 다이내믹, 템포리듬은 자주 바뀌는 음악이 집중시간이 짧은 아이의 집중력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밝은 음색으로 된 곡들을 사용한다.

■2단계

1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청각적 경험이 계속 강조되어진다. 2 단계에서는 음악용알이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고 자유롭게 나뭇대로의 몸짓을 만들기 시작한다. 부모나 유치원의 교사는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면서 짧고 가사가 없는 반복적인 노래를 불러 주도록 한다. 불러 주는 노래의 음역은 보통 d'-a'에 있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Song이나 Chant는 다음과 같다. Song은 후행 단계들에서 조성패턴학습 경험을 위한 것이고 Chant는 리듬패턴과 연결된다.

SONGS WITHOUT WORDS



SONGS WITHOUT WORDS (continued)



SONGS WITHOUT WORDS (continued)



CHANTS WITHOUT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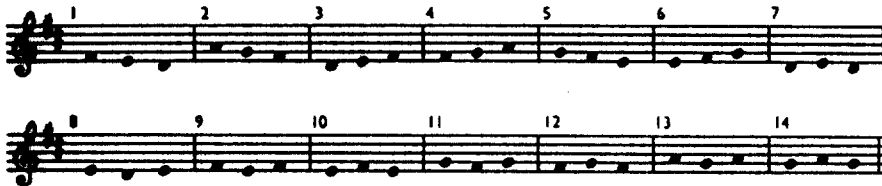


■3단계

3단계는 앞의 2단계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아이가 18개월이 되면 프레이즈나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에 대한 음악적 경험을 구조화시켜 제공하는 시점이다. 부모나 교사가 부르는 조성패턴이나 리듬패턴을 아이가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 불러야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어 패턴 부르기에 참여시키는데 일단 의의가 있다. 조성패턴이나 리듬패턴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반응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게 한다. 교사나 부모는 장조패턴이나 단조패턴을 불러주기 전에 장·단조로 된 노래들을 먼저 불러줌으로써 아이가 실재상으로는 아직 할 수 없지만 조성과 연관하여 패턴을 오디오에이트 하게 하는 청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조성 패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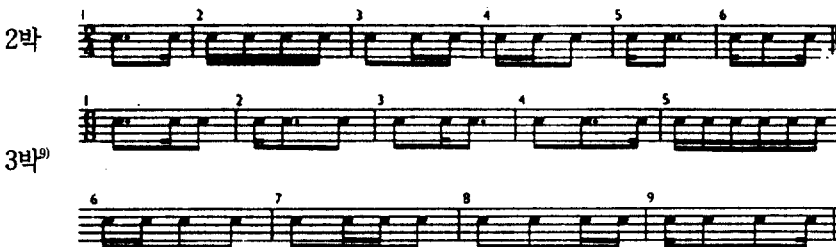
MAJOR TONALITY



MINOR TONALITY



리듬 패턴들



9) 6/8은 보통 2박류로 간주되는데 고든은 아이는 Macro beat(리듬패턴을 이루는 기본 비트)보다는 Micro beat(Macro beat의 균등분할)에 훨씬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3개의 일정한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3박류로 쓰인다.

조성패턴의 구조는 선행단계에서 오디에이트한 음역 d'-a'에 있는데 보통 전음계적으로 움직이는 3음들로 되어있다. 2-3개의 조성패턴들을 연속해서 부를 때면 “밤”음절을 사용해서 가 패턴들 간에 간격을 두면서 깊게 숨을 쉬어주며 간격을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 리듬패턴은 2박이나 3박으로 된 2개의 기본 Macro beat로 구성된 패턴을 “바”음절을 사용해 같은 음으로 스타카토나 레가토로 불러준다.

Ⅳ. 모방

준비오디에이션과정에 있는 모방유형은 아이가 4살 가량이 되면 끝나야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이가 음악소질과 초기의 음악환경의 특질에 따라 더 빨리 완수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 유형에 머무를 수도 있다.

■4단계

부모나 교사가 적절히 이끌어 주면 아이는 그가 들은 것은 정확하게 모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처음에 아이는 불러준 패턴을 모방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 내서 반응할 것이다. 이때 교사나 부모는 아이가 부른 패턴을 듣고 그 패턴을 모방하며 불러준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이 부르며 아이에게 같이 그 패턴을 불러보게 한다. 아이에게 들은 패턴을 모방하게 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노래 부르는 패턴을 모방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래할 것을 주의 깊게 듣게 되기 때문이다. 패턴을 부를때 사용하는 음절은 선행단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모든 조성패턴은 “밤”음절로 리듬패턴은 “바”음절로 부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진다. 4단계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아르페지오패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조성 패턴들

MAJOR TONALITY



MINOR TONALITY



- (1) 2음으로된 I 기능 조성패턴의 경험 후 3음으로 된 I 기능 조성패턴들
- (2) I 기능 조성패턴 후 V 기능조성패턴들
- (3) 2음으로된 V 기능 조성패턴들
3음으로된 V 기능 조성패턴들
- (4) 3음으로된 I, V, 기능패턴 후 4음으로된 패턴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불러주기 전에 가기 그 조성과 박으로 된 노래들을 먼저 불러주게 되어 있는데 이때 노래가 반드시 불러줄 조성패턴이나 리듬패턴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5음음계의 노래들은 이끔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리듬패턴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기본 매크로 비트를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리듬 패턴들



리듬패턴을 부를 때는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 중간템포로 불러 준다. 어른이 노래를 부르며 하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몸짓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아이가 할 수 있는 몸짓을 예로 들면

- 1) 서서 계속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하는 지속적인 동작
- 2)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앉아서 엉덩이를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 등을 할 수 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면 아이는 보통 “audiation stare”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노래나 움직임이 같이 노래하는 상대방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보이는 징후로 설명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그의 노래나 몸짓을 어떻게 고치는 것 인지는 모르지만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최초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audiation stare”의 지점에서 제5단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4단계에서 이 징후를 보이는 지점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일단 5단계에 들어서면 아이는 그가 속한 문화속의 음악의 구성과 박과 관련지어져 어른 세계의 음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4단계에서 아이의 얼굴표현이나 동작으로 그가 부르는 패턴들이 들은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보이면 5단계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조성패턴을 노래 불러주고 모방하게 하고 다시 아이가 부른 조성패턴을 조성패턴을 즉시 모방하며 조성의 중심음¹⁰⁾을 불러주고 나서 다시 원래의 조성패턴을 반복한다. 패턴을 정확하게 부르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패턴모방과정을 계속하므로써 더욱 소리에 집중하게 해준다. 패턴을 잘 모방할 수 있게 되면 서로 패턴을 바꿔가며 부르면서 차이점을 느끼게 해 주도록 한다.

조성패턴을 부를 때 장조에서 “Do와 So” 단조에서 “La와 Mi”를 제외하고는 음정의 간격이 좁은 패턴을 부르는 것이 아이에게 쉽다.¹¹⁾ 패턴과 노래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아이는 노래 전체나 부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패턴이나 리듬패턴만을 모방하게 한다.

각 어린이의 개인적 음악능력 차이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패턴의 수와 유형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연령이라도 어떤 아이는 여전히 3단계에 머무르면서 전음계적 패턴이 학습되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4단계나 5단계의 아르페지오패턴을 사용해서 학습된다. 3세나 4세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유동음악소질검사(developmental Music Aptitude test¹²⁾)인 Audie는 4-5단계를 위해서

10) 중심음(resting tone)은 조성패턴보다 아이가 부르거나 오디에이트하기 쉽다. 즉 중심음을 오디에이트하고 조성패턴을 연관시키는 것이 좋다.

11) 고든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어린 아이는 아르페지오패턴보다 전음계적 패턴을 노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그 결과 아르페지오패턴을 오디에이트 하기 전에 전음계적 패턴을 오디에이트하는 것을 순서로 하고 있다.

12) 고든은 태어나서 대략 9세까지의 음악소질을 변화가 가능한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유동음악소질(developmental Music Aptitude), 그 이후의 음악소질은 변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고정음악소질(stabilized Music Aptitude)로 봄.

사용되어지고 좀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과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을 사용해서 음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타당한 음악적성검사의 결과는 한 아이의 음악적 잠재력과 학습진행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보조물로 사용될 수 있다.

패턴을 잘 모방하게 되고 또 단순히 모방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면 후에 오디에이션 자체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아이가 만들어낸 패턴이 원래의 패턴과 다른 조성이나 박에 있어도 무방하다.

리듬패턴은 이전의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부르며 여러 가지 몸동작을 해보도록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몸동작을 할 때 한곳에 서서 상체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종류의 몸짓은 유아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곧 그러한 능력이 상실되고 만다. 유아가 하는 본능적인 능력을 다시 터득하도록 도와 준다. 6단계가 되기 전에는 손뼉치기, 걷기, 뛰기 등의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아이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로 들려주며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준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때 나무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동작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며 표현해 보게 한다. 아이가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동작을 계속해 나갈 때 적절한 템포에서 매크로 비트를 음절 “바”를 사용해 불러 준다.

V. 동화

각 유형에 따른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의 경험에 따른 특징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문화화 유형에서는 패턴을 흡수한다. 모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모방하지는 못한다. 모방유형에 들어오는 초기에는 패턴을 잘 모방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확도를 가지고 패턴을 모방하는 것을 배운다. 동화유형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패턴을 부르며 몸짓이나 여러 가지 동작을 조정하여 패턴 부르고와 조화시키게 된다.

■6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단순히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조금씩 구조에 의미를 주는 것이다. 언어발달과정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처음에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각 단어들을 단순히 모방하게 된다.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아이는 그 것을 프레이즈나 문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말하고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 어떠한 구성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한지 않는다. 이것은 말은 하지만 어떠한 지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패턴을 부르며 몸의 동작과 연관, 조정하여 동화시키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을 축약된 사고로 종합시키지 않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가르쳐지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데 선행단계들에서 음악적 소리들을 흡수하도록 경험 되어졌던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동화유형을 통해 안내 받기 전에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에 연관지어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 간에 구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노래하거나 율조리는 패턴이 몸의 움직임과 잘 조화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화시키는 가를 가르쳐 주지 말고 아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6단계에서 사용하는 조성패턴과 리듬패턴들은 모방유형인 4, 5단계에서 사용되었던 패턴들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아이는 다른 사람과 조화하는 능력보다는 그 자신과 조화시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각 단계를 거칠 때 한번에 하나의 새로운 행위밖에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번에 2가지 행위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패턴을 부르면서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할 때는 적어도 둘중 한가지에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조성패턴과 리듬패턴들의 모방을 충분히 경험하고 지속적인 몸짓을 유연하게 잘 하게 되면 동작을 계속 만들어 가며 마이크로 비트를 느끼도록 해야한다. 가장 단순한 동작 즉 한곳에서 계속 앉아서 또는 서서 몸의 상체를 주로 사용해서 만드는 동작을 해보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몸동작을 해봄으로써 계속되는 균등한 박의 진행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부르며 이러한 지속적인 몸짓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패턴 부르기는 중단시킨다. 그리고 교사가 음절 “바”를 사용해서 적절한 템포로 균등박을 불러 주면 몸동작을 거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바-바 하면서 일정박의 진행을 소리내어 주면 아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한 박에 2개의 균등분할, 2박류의 몸짓을 만들어 보게 한다.¹³⁾ 아이가 일정박을 느끼며 지속적인 몸짓을 잘할 수 있게 되면 음절은 불러 주지 않는다. 이제는 움직이며 동시에 이전에 사용되었던 리듬패턴들을 부르게 해본다. 리듬패턴들은 4개의 기본 매크로 비트를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보므로써 자연스럽게 숨쉬며 동작과 호흡을 적절하게 맞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간과 일정한 흐름에 대한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 7단계

리듬패턴과 조성패턴을 부르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 조성패턴을 노래하

13) 고든은 문화권의 차이 없이 2박류의 몸짓을 아이가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으로 간주 코다이 교육과정에서는 헝가리 동요가 2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나 4/4의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통해 리듬감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며 동작과 조화시키기 전에 먼저 리듬패턴 부르기와 동작을 조화시키도록 한다. 교사나 부모에 의한 적절한 테크닉의 사용은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7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리듬패턴 부르기와 동작은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데는 먼저 동작만 따로 하는 것을 도와 주고 나서 움직이면서 리듬패턴을 부르는 것을 도와준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지속적인 몸짓을 만들어 가면서 균동박을 “타”음절로 부르며 마카로 비트를 느끼게 하도록 한다. 교사가 “바”음절로 매크로 비트를 불러 줄 때 아이가 “타”음절로 소리내며 몸을 움직일 때 처음에는 혼돈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비트를 강조하는 이유보다는 다른 음절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이에게 오는 혼돈이다. 시간이 지나면 교사가 내는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음은 지속적인 동작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무게를 사용하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학습들이다.

- (1) 양손을 동시에 또는 따로 몸의 같은 부분으로 움직여 보게 한다.
- (2)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며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든다.
- (3) 앉아서 마주보고 아이의 왼손과 어른의 오른손을 또는 그 반대로 팔을 돌리면서 맞추어 쳐보게 한다.
- (4) 둥글게 원으로 아이들을 세우고 공이나 원반 등 아이들이 던지기 쉬운 물건을 상대방에게 되도록 멀리 던져 보게 한다.
- (5) 손을 잡고 둥글게 원으로 서서 앞으로 모여서 다같이 점을 만들어 뒤로 걸어가며 원을 만드는 동작을 여러 번 해보게 한다.¹⁴⁾

일정한 박의 흐름을 잘 느끼면서 지속적인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면 그러한 동작들과 함께 조성패턴 부르기를 조화시켜 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리듬패턴을 부르며 동작을 만들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조성패턴과의 조화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어진다.

만약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조성패턴 부르기와 몸동작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조성패턴을 부르기 전에 먼저 가볍게 뛰어 오게 하고 깊게 숨을 쉬게 해 본다. 그리고 다시 조성패턴을 노래하며 지속적인 동작을 만들어 보게 한다. 각 조성패턴을 부를 때 몸짓의 무게나 흐름을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Edwin Gordon(1990).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 (GLA Publication) p. 90-91.

Ⅵ 맺는말

모든 역사의 발전과 진보는 이미 존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은 서양의 음악교육방법론에서 본질적으로 중요시되어 왔던 기본 원리들을 토대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의 교육방법론에서 고려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문제 중 학습 전반의 위계층을 설립하는 문제, 음악학습 경험의 계열성의 성격과 연관지어 가 단계에 적절한 패턴화 학습이 가장 중요시되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조기교육에 있어 풍부하고 체계적인 청각학습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은 코다이나 여타의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내포되어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고든은 아동이 태어나서 취학하기 전의 시기를 오디에이션이 계발되어질 수 있는 준비도를 형성하는 기간으로서 특히 음악옹알이시기(조성옹알이, 리듬옹알이)에 음악적 구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의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계열학습을 체계화시켜 놓았다. 다양한 조성과 박의 음악들을 음악문화화과정에서 경험시키고 조성이나 리듬의 패턴학습을 생후 18개월부터 이미 시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고든은 패턴을 모르고 노래하는 것은 낱말의 의미를 모르고 시를 암송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는 어린 아기들을 보면 흔히 어른이 내는 소리를 모방하려고도 하고 나름대로 소리를 내보는 여러 가지 웅얼거림이나 음악을 들으면 몸짓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언어옹알이가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어떠한 문화권의 어린이도 거치는 과정인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시점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성옹알이와 이에 따른 계열학습에 관한 문제이다. 과연 어린 아이의 웅얼거림이 꼭 조성옹알이의 단계로 볼 수 있을까? 조성감을 완전히 확립해 주기 위한 조성옹알이에 연관된 패턴의 계열학습이 서양음악과 문화권이 다른 음악의 어린이에게는 오디에이션의 능력 계발은 문화종속적이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이다.

우리는 지금 서양음악이 너무 팽배해져버린 교육에 의문을 갖고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적 전수와 특히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저학년의 아동에게 전통음악에 대한 문화화과정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있다. 어느 쪽을 택하건 한쪽을 철저히 효과적으로 경험한다면 또다른 한쪽의 이해나 수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실제상으로는 국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시창·청음 시간에 겪는 어려움이나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것을 항시 볼 수 있다.

여하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더많은 실험과 연구가 전통음악이나 이제
는 보편화되어 버린 서양음악에 통용될 수 있는 음악학습이론이나 방법론의 체계화에 이바
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entley, A. (1966), Bentley Measures of Musical ability, N.Y.:October House Inc.
- Flohr, J. W, "short-term Music Instruction and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JRME, (Fall 1981), pp 22-24.
- Forrai, Katalin(1988), Music in Preschool, Budapest:Franklin Printing House.
- Fullard, W. J. Jr., "Operant Training of Aural Musical Discriminations with preschool children", JRME (1967), pp15-17.
- Gordon, Edwin(1971), The Psychology of Music Train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_____ (1990),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Chigago, G.I.A. Publications Inc.
- _____ (1993), Learning Sequence in Music, G.I.A. Publications, Inc.
- Hensen, R. A.(1977), Music and the Brain, Charles Thomas Publisher.

ABSTRACT

Edwi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for Young children

Keum-Joo B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music, to discover how very young children learn music and to determine how very young children might best be taught music based on Edwi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Young children should have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guidance to achieve the necessary readiness prior to formal music instruction in school. According to his theory, a child's music aptitude continues to decrease until his music environment becomes appropriate. When the music environment becomes appropriate, a child's music aptitude will begin to increase toward its birth level. By the time a child reaches approximately age nine, his level of music aptitude is no longer affected by his music environment, even by a music environment of extremely high quality.

When we look at the music development through Gordon's eyes, we can see the orders and invariant sequences applying to each stage of every human being's early childhood. However, we can not conclude yet definitely that the specific music behavior and its linked and sequential guidance drawn from his experimental research should be applied to the children who are in the different cultural context.

In this respect, diverse experimental researches on the early childhood music should be carried on, which can render the general acceptance regardless of racial and cultural difference.